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대중 좌담회
교회세습,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2013년 1월 8일(화) 오후 7시

장소 : 청어람 소강당

주최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www.seban.kr

(참여단체 : 감리교 장정수호위원회, 개혁교회네트워크,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2.0
목회자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바른교회아카데미, 성서한국)

목 차

순 서	03
기 조 강 연 문	04
한국교회와 목회 세습 _ 강영안 교수(서강대 철학과)	04
기조강연 참고자료 : 대물림되는 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10
발 제 문	17
1. 다시 개신교 정신으로 _ 양희송 대표(청어람아카데미 대표기획자)	17
2. 교회세습 상식에서 생각하자 _ 나이영 부장(CBS 종교부)	20
3. (초)대형교회의 목회세습, 어떻게 볼 것인가 _ 양혁승 교수(연세대 경영학과)	24
4. 교회세습, 낡은 가족부대 _ 박득훈 목사(새맘교회)	29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소개	34
출 범 선 언 문	35
참 여 단 체 소 개	36
광 고	37

순 서

사 회 _ 양희송 대표(청어람아카데미 대표기획자)

인 사 말 _ 방인성 목사(함께여는교회, 실행위원장)

기 조 강 연 _ 대물림되는 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강영안 교수(서강대 철학과, 지도위원)

좌 담 회 _ 교회세습, 무엇이 문제인가?

패널/사회 양희송 대표

패널 나이영 부장(CBS 종교부)

양혁승 교수(연세대 경영학과)

박득훈 목사(새맘교회)

질 의 응 답

광 고 _ 김애희 사무국장(교회개혁실천연대)

한국교회와 목회 세습

강영안 교수(서강대 철학과)

다시 이런 모임에 나온 것이 저에게는 새삼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듯이 운동과 관련한 모임에는 그동안 별로 관여하지 않고 오랫동안 거의 숨어 지내셨습니다. 조제호 국장의 강권 때문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만 12년 전에 세습반대운동을 할 때 기윤실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광림교회 세습이 그 때 이슈화되었습니다. 자료집에 실린 글은 지난 3월 한길사에서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내면서 한 부분으로 실은 글입니다. 12년전에 했던 세습반대운동의 과정과 정신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당시 건강교회운동본부를 맡았던 박득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고세훈 교수, 최근에 인수위에 들어간 이승종 교수, 오세택 목사님 등이 주축이 되어 이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도 그 때 아마 처음 기윤실 운동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광림교회는 2001년 봄에 결국 세습을 결행했고 기윤실의 세습반대운동도 그 뒤에 멈추었습니다. 2002년에는 건강교회운동본부가 해체되고 교회개혁실천연대가 발족했습니다. 아직도 그 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1987년 기윤실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뒤 지난 25년간 겪었던 일 가운데 가장 저에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뒤로 저는 다시 이제 공부하는 일에만 전념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 세습반대운동이 계속 이어졌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최근에 세습반대운동이 다시 시작되어 저도 지도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1 '세습'이라는 현상

목회 세습은 세습반대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12년 전 보다 지금은 더욱더 보편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세습이 이제는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각 교단마다 노회나 시찰을 통해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목회자가 교체된 교회에 아들이나 사위가 담임목사직 승계를 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보면 쉽게 통계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통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보는 바에 따르면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중소형교회들의 세습이 훨씬 더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거의 당연한 것처럼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세습'이라 부르든 '승계'라고 부르든, 아니면 지난 여름 한기총 성명서에서 주장했듯이 '청빙'이라 부르든 간에 아들이나 사위가 담임목사직을 물려 받는 현상이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을 현상 자체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가 알기에는 역사가 오래 된 교회에서는 세습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교회일수록 연세 많은 장로들의 목소리가 높고 담임목사가 전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습이 발생하는 교회는 대부분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개발과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한국 개신교가 팽창할 시기, 젊은 목회자의 몸으로 거의 혈혈단신 개척을 했던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도시의 경우에 대부분 작은 상가 건물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들은 교인 수가 늘어나고 헌금의 액수가 증가하면 좀 더 큰 상가로 옮겨 더 큰 교회로 자라났습니다.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는 여러 사역자들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담임 목사의 설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부분의 중대형 교회들의 경우에는 담임목사 개인의 기량에 따라 교회가 자랐고, 교회가 자란 만큼 담임목사의 발언권이나 결정권은 비례해서 커졌습니다. 당회와 재직회가 있지만 중요 결정은 사실상 담임목사의 의중에 달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회는 담임목회자의 의중을 알아서 그것을 지원하고 보충하고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임무처럼 되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담임목사는 마치 회사를 창업한 창업주와 비슷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형교회가 아니라 중소 규모의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가 담임목사가 개척한 교회라면 담임목사의 권한은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헌신이 없이는 유지할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아낌없이 내어 놓은 교인들에게는 인사나 재정과 관련해서 별 권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장로들입니다. 담임목사가 개척한 교회일 경우 장로들은 대부분 담임목사가 세운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내에 흐르는 정서를 보면 담임목사가 세운 장로들이 담임목사의 뜻을 거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목회 세습의 경우도 만일 담임목사가 원한다면 장로들은 대부분 담임목사의 의견을 따릅니다. 공동의회에 그 안을 내어 놓았을 때, 이 경우도 한국교회 정서상, 대부분이 당회에서 결정한 것을 승인해 줍니다. 목회 세습은 (1) 담임목사 (2) 교회의 장로들 (3) 교인들, 그리고 (4) 세습을 받는 당사자(아들이나 사위 또는 친인척), 이 사자(四者)의 협력이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일 담임목사가, 또는 장로들이, 또는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또는 세습을 받는 목사가 반대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재 문화, 현재 정서는 이 네 당사자가 손잡아 세습을 성사시키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담임목사가 장로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담임목사와 장로들이 교인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물려 받는 목사에게도 그만한 능력이나 자질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인들의 회의를 쉽게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깥사람들이 보기에 교인들로부터 신뢰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담임목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담임목사직 승계를 공동의회에서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을 보면 교인들에게 분명 '인지적 착각'이나 '혼란'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세습을 가능케 하는 교회 문화와 의식

한국교회를 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재 형성되고 실행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마도 가장 좋을 것입니다. 무엇이 '현실 그대로'인가를 가려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현재 드러난 그대로', '현상 그대로' 보자고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몇

가지 요소로 나누어 서술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술해 놓고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것이 교회인가?" 라는 물음을 갖게 하는 현실을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가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 교회는 시간과 힘과 돈을 내지만 정신적인 보상 외에는 달리 보상이 없는 교인들(이른바 '평신도들')과 교회가 일터가 되어 사례를 받는 전임 사역자(이른바 '성직자')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담임목사가 역시 중심에 있습니다.

(2)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예배, 성경 공부, 구역모임, 제자 훈련, 전도 훈련, 봉사활동, 회의 등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이런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 받습니다. 이 가운데 예배가 중심에 있습니다. 예배는 목사의 전문 영역이므로 '예배 중심'은 자연스럽게 '목사 중심'을 초래합니다.

(3) 담임목사의 주요 임무는 예배 인도, 설교, 심방을 하는 것이고 교인들의 주요 임무는 예배 및 각종 모임 참석, 교회 봉사, 헌금, 전도에 열심을 보이는 것 정도로 통상 이해됩니다.

(4) 목사로서의 성공적인 삶은 교인 수를 많이 늘리는 것, 다시 말해 많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5) 교인의 성공적인 삶은 교회 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 잘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데 있다는 생각을 목사나 교인들은 대체로 공유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은 "신앙 좋다"고 말합니다.

종합해서 보면 오늘 한국교회는 역시 '예배 중심'이고, '목사 중심'이고 신앙생활 또한 '교회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부할 정도로 많이 지적되지만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 신앙생활과 세속 생활이 이분화 되어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세상 생활, 세속 생활보다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신앙생활에 전념하게 되는 것이 한국 개신교 교인들의 삶의 방식이라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장사하고, 아이 키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밥 먹고 일하고, 투표하고, 공부하는 일을 '신앙생활'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교회 안에 머물 뿐 그 힘을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만나고 일하는 가운데는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이며, 목회자 승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목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목회에는 교인의 수, 주일 헌금의 액수, 교회 건물의 유무, 노회나 교단에서의 위치, 이것들이 목회자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일로 등장합니다. 더구나 사모님이 열성이 있는 분이면 목회자와 사모님이 함께 교회를 일구어 나가고 교인들을 챙기게 됩니다. 그렇

게 하다보면 (2)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재산은 하나님의 재산이지만, 어느 새 교회는 목사와 사모님의 교회가 되고 교회 일은 목사와 사모님이 함께 주축이 된 가업(家業)이 되어 갑니다. 교회 재정이나 인사에 담임목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재량권이 많이 주어 질수록 교회가 사유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3) 목회자 승계와 관련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러날 시점이 가까이 다가오면 그렇게 애써 일군 교회를 남에게 넘겨주기 보다는 아들이나 사위가 신학을 하거나 이미 목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들이나 사위에게 넘겨주고 싶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목회 세습은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상식도, 세상의 비난도, 성경적인 관점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마치 힘써 가꾸어 온 가게를 자식에게 물려주듯이 애써 가꾼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처럼 되어 버립니다.

3. 교회, 목회, 목회자

한걸음 물러나 생각해 보시지요. 신학적으로 보면 (1)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주교도 교황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두 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유화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2)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하고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역자 가운데 하나가 '목사'라는 직분입니다(엡 4장). 목사를 세운 목적은 성도를 세워서 봉사의 일을 하게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키의 정도'에 이르는 것입니다. 목사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 부름 받아 특별히 이 일을 하도록 세움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도 이와 같은 목표에 동참하는 사람임은 당연한 일입니다. (3) 지역 교회에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 목사를 선정할 때도 성도를 세우는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목사의 아들이나 사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지역교회의 목회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하여 목사와 성도들이 다 같이 범사에 그리스도처럼 되어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나 동등함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비움'과 '낮아짐'의 삶으로 부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삶을 통해 삶을 다시 세워가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묻는다면 자신이 따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분을 따라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서 삶을 온전히 회복하는 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속에서 체험되고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성경에서 보는 목회, 교회, 목회자의 승계 정신과는 너

무나 먼 현실이 아닌가요?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의 삶과 가르침과는 별로 관계없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가정, 학교, 기업, 정부 조직처럼 사회 속에 있는 여러 제도, 여러 기관 가운데 하나의 제도, 하나의 기관으로 분명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제도와 기관 또는 조직이 돌아가는 방식대로 돌아갑니다. 이 방식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라 부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크 엘뤼의 표현을 따르자면 '기술적 사고'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수단을 강구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교회와 목회자가 설정하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교회 성장입니다. 제자훈련, 전도폭발, 이 모든 것들은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세습도 교회 성장, 아니면 최소한 교회의 현상 유지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 있는 존재론적 원리는 스피노자가 '코나투스 에센디'(conatus essendi)라고 부른 '자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물러나는 목사는 목사대로, 교회 장로들은 장로대로, 교인들은 교인대로, 자신들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욱 더 크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키우고자 하는 욕망이 현상 가운데 하나로 표출된 것이 목회 세습의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단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전개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세기 한국 역사는 한마디로 비참한 역사였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다시 찾은 나라조차 몇 년 뒤에는 전쟁으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 이들을 부모로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생존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습니다. 살아 남기 위해서는 남들과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경쟁을 하자면 남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건물에 교회가 몇 개나 들어서 있으면서도 서로 형제자매로 동류의식을 갖기보다 경쟁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은 단순한 생존, 단순한 '자기보존'에만 머물지 않고, 니체의 말을 빌리자면 '자기상승'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힘을 더욱 가질 수 있고 자기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로와 집사들도 근대사의 경험과 함께 형성된 생존 욕구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서는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쟁의 초토화를 경험하고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오직 생존을 목표로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장 선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 세상 사람들 보다 더 세상의 논리와 삶의 방식을 이용해서 성공을 거두고자 한 사람들이 교인들이고, 장로들이고, 목회자들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것일까요? 그래서 교회도 결국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보다 오히려 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세습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일까요?

4. 맺음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예컨대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려보지만 현실은 교회도 한국 사회를 가동시키는 동일한 방식에 따라 운영되고 유지되고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보여주었던 삶의 방식과는 관계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추구되고 유지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요?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이나 목회자상에 대한 이해나 의사 결정하는 방식이나 과정 등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미 익숙한 것들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오히려 세상은 스스로 변혁하고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지만

교회는 더욱 더 그 이전의 세상 방식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보고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교회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이며, 목사는 누구이며, 신자가 누구인지, 참되고 선하며 아름다운 삶의 원천으로 믿고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은 누구인지, 삼위 한 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고백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다시 처음부터 묻고 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지점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면 세습은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가 되고, 교회가 사업체가 된 결과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발생한 하나의 결과요, 현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습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더 깊은 곳에, 더 내밀한 곳에,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서 그치고 토론자로 참석한 분들의 말씀에 저도 함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대물림되는 교회 무엇이 문제인가¹⁾

담임목사직 세습을 바라보는 시각

강영안 교수(서강대 철학과)

문제의 제기

세기가 바뀌면서 한국교회는 목회 세습을 통해 또 한 번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북한 정권의 부자 세습과 재벌기업들의 세습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무르익던 상황에서 담임목사직의 세습(속칭 '대물림')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반응은 생각보다 컸다. 한국교회가 과연 자정 능력이 있을까 하는 의심을 품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담임목사직 세습 반대운동에서 그 가능성을 보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교회 문제를 사회에 알린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전도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개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교인들이든 교인이 아니든 세습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곱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나는 때로는 뒤에서 세습 반대운동을 지원하고 때로는 앞에 나서야 할 처지에 있었다. 당시에 목회 세습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기독교 시민운동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약칭 기윤실)의 집행위원장 겸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윤실은 2000년 6월 3일 집행위원회와 건강교회운동본부 운영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통해 담임목사직 세습 반대운동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해 6월 30일에는 「일부 대형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발표하고 목회 세습이 한국 교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임을 교회와 사회에 알리는 일을 했다.

기윤실의 성명서는 세 가지 요점을 담고 있다. 첫째, 기독교는 혈연의 종교가 아니라 언약의 종교이다. 따라서 혈연적 요인이 목회적 승계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없다. 만일 2세가 출중하다 해도 새로운 목회의 길을 겸손히 택함으로써 숭한 역정 속에서 말없이 종의 사역을 감당해 가거나 그 길을 준비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담임목사직 세습의 이면에는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물량주의와 잘못된 소유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목사도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의 불완전한 종일 뿐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적으로 대변하는 신적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열어주신 만인제사장의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장직 세습을 들어 담임목사직 세습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새 시대와 신약교회를 부정하고 기독교를 구약의 율법 종교로 되돌리는 것과 같다.

1) 이 글은 강영안 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한길사:2012)에서 「대물림되는 교회 무엇이 문제인가」부분(219~233쪽)을 저자와 출판사 허락 하에 공유한다. -편집자 주

셋째, 재벌 총수마저도 스스로 경영권을 포기하는 오늘날, 혈연에 의지해서 교회의 평안을 추구하려는 것은 교회가 이미 깊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담임목사직 세습과 관련된 대형교회들은 인본주의적 현실을 직시하고 예수님을 명실상부한 교회의 머리로 모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²⁾ 이것이 성명서의 골자였다.

기윤실은 그 후 기도회와 포럼을 개최하고 각 교단 총회에 「담임목사직 자녀 세습불가 총회결정 호소문」을 발송하였다. 세습 반대 운동에 가장 크게 반응한 교회는 광림교회였다. 광림교회는 기윤실 건강교회운동본부에서 광림교회의 후임 담임목사로 결정된 김정석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 기윤실 방문을 요청했고, 기윤실은 8월 8일 광림교회에서 보낸 장로 일곱 분을 만나 그들의 입장을 전해 들었다. 9월 5일에 기윤실과 복상포럼은 세습을 주제로 한 포럼을 열었다. 이날 모임에서 '대형 교회 담임목사직 대물림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이만열 교수가 15분 정도 기조연설을 끝내자마자 광림교회 교인들이 일어나 방해하는 바람에 포럼 진행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1시간 반가량 논란을 벌인 끝에 결국 포럼을 포기하고 해산 선언을 하였다.³⁾ 이 자리에서 광림교회는 「기윤실 포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유인물을 배부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⁴⁾

담임목사직 세습에 대한 문제제기는 기윤실이 처음 한 것은 아니다. 광림교회의 세습 문제에 한정해보더라도 최초 문제제기를 한 사람들은 기윤실이 아닌 광림교회 교인들이다. 2000년 4월 26일에 광림교회가 담임목사직을 김선도 목사의 아들 김정석 목사에게 승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강하게 반발하였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이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교회 게시판에 폐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감리교 기관지인 「기독교 타임스」는 광림교회의 결정 직후 사설을 통해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된 기업에서도 세습 제도는 자랑스런 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자랑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개탄하였다. 같은 해 6월 16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주최로 모임 '개혁과 갱신'포럼에서는 목회 세습을 문제 삼았고, 이날 발제를 맡았던 박종근 목사는 "목회자 세습은 교회를 사적 소유의 개념으로 착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지적하였다. 감리교 측에서도 '교회세습중지 서명운동본부'가 구성되어 반대 성경을 받았고, 10월 19일 아현감리교회에서 연세대학교 김광식 교수와 감신대학교 이원규 교수의 발제로 교회 세습 문제를 고발하는 모임을 가졌다. 그 밖에도 한국기독교학술원에서는 10월 26일에 목회 세습을 주제로 한 공개강연회와 토론회를 가졌고, 신촌포럼에서도 11월 16일에 신촌성결교회에서 '담임목사, 은퇴 빛 선정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주제를 다루었다.

문제가 되었던 광림교회는 2001년 3월 25일 담임목사직 승계를 공식적으로 끝냈다. 만일 기윤실이 광림교회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목회 세습 반대운동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윤실은 광림교회의 세습을 끝까지 막으려고 하지 않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지도 않았다. 기윤실이 겨냥한 것은 광림교회가 아니었다.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실행되고 있고, 크고

2) 이 성명서는 「담임목사직 세습 반대운동 자료집」, 도서출판 기윤실, 2001. 19~21쪽에 실려 있다.

3) 이 기조연설은 같은 자료집, 49~54쪽에 실려 있다.

4) 같은 자료집, 161~163쪽 참조.

작은 교회들이 세습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님을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표였다. 이 목표가 현재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아직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 하지만 아들이나 사위에게, 단지 아들이고 사위란 이유로 교회를 물려주는 일이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대물림이 이제는 그렇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한국 교회들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새겨 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목회 세습 반대운동이 시작되자 어떤 교회는 세습의 공식화를 미루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세습을 하는 데까지 오게 되었나

먼저 밝혀 두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세습은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 목사가 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 교수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세습' 또는 '대물림'은 아버지가 담임목사로서 목회를 하던 교회를 아버지가 물려날 때 아들이 그 직책을 물려받는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담임목사직 세습'이다. 시골의 작은 교회에, 목회자로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자기 아들에게 목사직 대물림한 경우를 두고 누구도 세습을 했다고 비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담임목사직 세습은 귀족화된 목사직을 아들이나 사위에게 물려주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나는 한국 교회의 문제로 등장한 담임목사직 세습이 하루아침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교회가 걸어온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세습이다. 한국 개신교 성장과 관련된 특성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현상을 좀 더 바로 볼 수 있게 해 준다.

한국 개신교는 6·25전쟁과 1960년대 이후 개발경제를 거치며 급성장하였다. 전체적으로 교인 수가 늘었을 뿐 아니라 대형교회가 출현하였다. 예컨대 한국 개신교회 대표적 교회 가운데 하나인 영락교회는 이북에서 내려오거나 6·25전쟁 당시 피난을 온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강남의 대형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한국 최대의 교회였다. 강남 교회들은 강남이 개발되면서 생겨났다. 6·70년대를 거치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강남에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이들이 강남의 몇몇 대형교회를 이루었다. 이 시기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 보다 기복신앙적인 특성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전쟁의 참화와 정치적 불안, 그리고 60년대 이후 시작된 경제개발에 따른 부의 축적은 현세적 기복신앙의 발판이 되었다. 대형교회의 형성 배후에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목사의 설교와 구역을 중심으로 한 일사분란한 조직관리, 그리고 돈과 시간을 쏟은 평신도들의 헌신이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의 역할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대부분 죄에 대한 설교나 금욕과 절제를 강조하기보다는 위로와 축복의 설교를 했고, 우리의 욕구를 들어주며 채워주시는 하나님 상을 만들어갔다. 긍정적·적극적 사고를 외쳤으며 번영과 축복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다른 지역 목사들보다 더 큰,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후임문제가 불거져 나온 대표적 경우가 영락교회였다. 한경직 목사가 은퇴한 이후 영락교회는 여러 목회자를 거쳐야할 정도로 지도력의 안정에 실패하였다. 경동교회도 이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강원용 목사가 은퇴한 뒤, 이 교회도 여러 차례 담임목사의 경질 과정을 거쳤다. 충현교회도 김창인 목사가 물러난 뒤 두 분의 목사가 이어서 담임목사가 되었지만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지금은 김 목사의 아들이 목사 수업을 받은 뒤 담임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짐작컨대 이 과정을 지켜본 목사들은 아예 처음부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한국 교회의 큰 함정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형교회의 후임자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음은 인정한다. 그 큰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 조직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만 해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이루는데 공을 세웠던 목사가 계속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물러나는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들이나 그 밖에 지도자들에게도 있을 수밖에 없다. 대형교회로 성장하면서 교회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어느새 담임목사에게 길들어졌고, 그 길들임과 길들여짐을 목사나 장로들이 다 같이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러난 목사는 '원로목사'란 이름으로 교회에 전반적인 영향을 여전히 미칠 수 있기를, 교회 장로들은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 있기를 원한다. 원로목사와 불화가 있을 경우 새로 담임한 목사가 쫓겨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는 바로 이 원로목사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조성된다는 추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교회는 목사가 처음부터 시작한 교회일수록 어느새 담임목사에 의해 '사유화'되기 시작하였다. 교회의 예산·행정·인사 등 모든 부분에서 담임목사는 거의 절대권을 행사하며 담임목사와 가까운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명예와 영향력을 확장해가도록 구조화되었고, 다른 교회와의 공동체적 의식 없이 오직 '내 교회' '우리 교회'를 내세우는 개 교회주의에 빠져버렸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담임목사직 세습은 담임목사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사유화된 결과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수순이고 절차가 아닐 수 없다. 한국 교회 특유의 이런 배경에서 담임목사직 세습을 보아야 문제가 바로 보인다.

세습이 왜 문제인가

먼저 세습을 찬성하는 쪽의 주장을 요약해 보자.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는 2000년 9월 7일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목회권'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일이 '술하게'이지만 논란이 없다. 둘째, 외부인을 모시는 것은 교회로서는 리스크가 크다. 똑같은 신학을 해도 교회마다 영성의 차이가 있다. 심장이식을 해도 혈액이 맞아야 하고 피부조직이 맞아야 한다. 세습을 결정하게 된 배후에는 충현교회가 겪은 '시행착오'를 동일하게 밟지 않기 위한 마음이 있었다고 김 목사는 덧붙여 말한다. 충현교회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두 번이나 맡겼다가 뒤늦게 아들에게 신학을 시켜 후임으로 삼았기 때문에 혼란이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원로목사들의 조언도 한 몫 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저도 '세습'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아들이 후임을 맡아야 하는가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C, L 등 개신교계의 원로목사님들이 세상의 비난에 얽매이지 말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잘 판단해 결정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⁵⁾ 교회 유지와 성장이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거론된다.

광림교회 기획담당 박동찬 목사는 2000년 10월 26일 한국기독교학술원에서 주최한 공개 강연회

5) 「동아일보」, 2000년 9월 7일자 문화면 C7 참조.

에서 '한국 교회의 세습문제에 대한 신학적 조명'에 대한 논찬을 통해 광림교회의 부자 승계의 정당성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변호한다. 박 목사에 따르면 첫째, 목사는 교회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존재로, 평신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형교회와 달리 대형교회일수록 목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교회 성장에 있어서 목사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은 매우 크며, 대형교회일수록 목회자의 전문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⁶⁾

둘째, 교회 성장과 관련해서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이 중요하다. 전임목사의 목회철학과 다른 목회철학이 올 경우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러 성장하는 대형교회에서 아들을 훈련시켜 담임자가 되게 하는 것은, 첫째, 목회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이 되기 때문이며, 둘째, 후임자의 시행착오와 적응의 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⁷⁾

셋째, 후임자의 자질과 인품이 전임자보다 탁월할 때에 교회는 더 성장할 수 있다. 전임자가 워낙 탁월하여 대형교회를 이룬 경우 후임자의 탁월성은 전임자의 빛에 가려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첫째, 전임자의 협력과 지원이며, 둘째, 후임자의 적응능력, 그리고 셋째로 그 교회의 상황에 적합한 미래 목회의 비전"이라고 전제한 다음 박 목사는 이렇게 결론을 이끌어 낸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들은 후임자로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랜 기간 목회를 하였다면 더욱 많은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그 교회의 특성과 분위기를 알고 또 많은 교인들과 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교인들도 담임자가 교체된 이후에 받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신임목사의 새로운 목회 방침을 쉽게 이해하고 따르게 된다."⁸⁾ 박동찬 목사의 주장에도 김선도 목사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유지와 성장이 모든 것을 보는 가장 중요한 틀로 작용한다.

그러면 세습이 왜 문제인가? 세습이 문제되는 것은 첫째,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바처럼, '사유화'의 문제 때문이다. 물론 교회는 법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완전한 사유화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세습이 된다면 은퇴하는 원로 목사와 그를 따르는 지도자들, 그리고 원로목사의 뒤를 이은 아들 목사가 교회의 중요한 정책 결정과 집행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미래의 가능성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담임목사직은 아들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발상 자체가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보는 생각이 물러나는 목사에게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애써 개척했거나 키운 교회를 은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보다 자식이나 사위에게 넘기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역시 인간적인 욕심이 개입한 생각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은퇴하는 원로목사가 지금까지 누리던 영향력과 재량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들이나 사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세습의 근본 이유라고 생각한다. 교회의 유지와 성장은 사실상 여기서 부차적일 것이다. 김선도 목사의 '심장이식론'도 후임 목사와 교회 간의 동질성보다 오히려 자신과의 동질성이 더 고려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6) 박동찬, 「아들이 후임담임자로 선정되는 것에 대한 목회적 고찰」, 앞의 자료집, 2001, 135~147쪽. 인용은 137쪽. 이 논찬 원고는 한국기독교학술원의 허락을 받아 기윤실 자료집에 게재한 것이다.

7) 같은 자료집 139쪽.

8) 같은 자료집, 142~143쪽.

세습이 문제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은퇴하는 목사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 해도 원천적으로 후임 후보에서 배제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능력보다 혈통을 중시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게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를 말씀과 기도, 설교와 상담으로 섬길 담임목사는 가능한 후보들 가운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점에서 목회는 여타 가업(家業)과는 구별된다. 자신이 피땀 흘려 일군 가게나 점포는 자녀가 능력이 있다면 대물림해줄 수 있다. 특수한 기능이 있을 때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대를 이어가도록 일터를 물려줄 수 있다. 그러나 교회 담임목사직은 가업처럼 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교회를 일구는 데 은퇴 하는 목사의 공이 지대하다 해도 교회가 것처럼 성장하는 데는 수많은 교인들의 시간과 재물, 열심히 투입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룬 가게를 넘겨주듯 자식에게 넘겨줄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마치 개인 재산처럼 보기 때문이다.

셋째, 후임 목회자를 결정할 때 교인 전체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도 세습과 관련된 문제이다. 중요한 점은 후임 선정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사청빙위원회가 구성되고, 가능한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교인들에게 알리고 후보에 관해서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후임목사가 될 사람의 설교와 강의를 들어보고, 교제해보고, 가능하다면 그의 성격과 삶의 방식을 어느 정도라도 알 수 있는 기회가 교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되면 장로교 제도에 따라 공동의회를 거치거나 감리교면 감리교 제도에 따라 구역인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은퇴하는 목사의 아들도 목사라면 후보로 거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인들의 친숙도나 지명도는 전임목사 아들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말 좋은 아들이라면 유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조차 은퇴하는 목사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한국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들 청빙을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역사를 거스르는 관행

나는 한국 기독교가 사회 속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세습 중단이 선도적 역할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필요조건은 될 수 있다. 세습은 한국 교회를 뿌리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개교회주의, 교직자의 권위주의, 교회 성장주의, 목사의 귀족화 등이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세습이 당연시 되는 한,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정의를 부르짖을 수 없고, 민주적 의식과 삶을 선택한 가치고 내세울 수 없고, 화해와 일치를 주장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봉건제를 유지하는 데도 기여하였고 민주주의를 신장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근대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이 가운데서도 특히 개신교는, 민주주의 신장에 절대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는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전통을 이어받았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누구나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기독교는 우리에게 가르쳤다. 신문과 잡지를 만들어 배포했고 민주적인 토론 문화를 가르쳐주

었다. 담임목사직 세습은 기독교의 이러한 민주적 전통을 역행해서 봉건시대로서의 회귀를 알리는 매우 코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목사가 되고 그 직임을 수행하는 것이 고난스럽고 어려울 때는 세습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목사가 이제는 대우 받고 존경받을 뿐 아니라 세속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와 명예와 영향력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습이 큰 유혹이 되었다. 사회 전체는 혈연과 지연 등 연고를 떠나 능력과 자질을 우선하고 민주적 결정과정을 존중하는 관행이 형성되고 있는데, 유독 교회만 세습을 한다는 것은 역사적 전통을 뒤집는 결과를 가져온다.

교회 세습은 우리가 함께 일구어가야 할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건전한 종교행위는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없어서는 안 된다. 세습을 고집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정의롭고,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시 강조하자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민주적이고 신사적이어야 하고,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사심을 버려야 하며, 선한 일, 선한 목적이라면 누구보다도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목사도 사람 아닌가? 자기가 맡았던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당연하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누구보다도 정을 두고 일해온 곳을 얼굴도 모르는 제3자에게 물려주고 싶은 목사도 드물 것이고, 낯선 사람을 담임목사로 모셔오고자 하는 교인들도 별로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당연히 품을 만한 생각이다.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은 사람의 체질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담임목사는 자신이 일하던 곳을 물려나면 그 교회와는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한다. 미국의 어떤 교단은 목사가 은퇴하면 아예 수백 마일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국내에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분들이 계신다. 가까운 사람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가혹한 일일 수 있지만 후임목사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담임목사의 청빙과 후임 결정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개선하며 선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발제문 1

다시 개신교 정신으로

양희송(청어람아카데미 대표기획자)

1

90년대 중반 총현교회의 세습을 필두로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개신교 내에 거세게 불어 닥친 세습 열풍은 10년 넘는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확산된 듯하다. 이제는 중대형 교회 담임목사의 은퇴와 청빙 문제를 당하면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아들이나 사위 중에 목사가 없는가를 보는 상황이 되었을 정도이다. 사회로부터도 재벌, 북한과 더불어 세습하는 대표적인 3부류로 비난 받는 처지에 놓였다.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 비판 이전에, '교회 세습'은 지난 30년간 한국 개신교가 교회성장의 정점을 넘어서고 맞이하게 된 리더십 교체 문제에서 실패하고 있음을 현상적으로 드러내는 징후로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그런 세습을 시도하는 이들에 대한 개인적 비난이 불가피하겠으나, 단순한 개인윤리를 넘어선 구조적 사안이란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교단 신학교는 수요공급과 상관없이 신학생 수를 늘려와서 수급에 실패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목회자는 이미 과잉배출되어서(230개 교단, 14만 목회자, 78,000 교회) 2011년 말 2만개로 추산되는 편의점보다 더 과밀한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한국 개신교가 겪는 개척교회의 위기는 한국사회 자영업의 위기와 겹치고, 부교역자 처우문제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신학생들은 청년실업과 고스란히 오버랩된다. 세습이 단지 초대형 교회만 아니라, 중소교회까지 편만하게 확산되는 이유는 사실상 직업적 생존 위기 문제와 직결되는 지점이 있다. 당위론적 비판이 당사자들에게 잘 먹혀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다.

2

나는 최근 줄저 [다시, 프로테스탄트](복있는사람, 2012)에서 한국 개신교의 내부적 문제를 '성직주의', '성장주의', '승리주의'로 꼽았는데, 이는 곧 종교개혁의 원리와 역사적 교훈에 대한 일탈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중 '성직주의'와 '성장주의' 두 가지가 공모한 현상의 대표적 사례가 '교회 세습'이다. 지난 30년간 우리의 교회론은 '교회 성장' 혹은 '교회 부흥' 외에는 없었다. 교회는 성장하는 것으로 그 존재증명을 하는 것이라 보았다. 교회의 건강성이나, 균형을 측정할 다른 지표는 성도들 가운데 부재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런 성장을 일군 목회자는 '특별한 존재'로 추앙을 받았다. '큰 교회'를 일군 목사는 '큰 목사'라 불리었다. 거대한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함께 하심을 입증하는 간증이었다.

대다수 한국 개신교회는 공룡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의 문제는 공룡이 되어서 생긴 문제와 공룡이 되지 못해서 생긴 문제, 둘로 나눌 뿐이다. 크기가 작아도, 그 열망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 동일한 패러다임 아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종종 작은 교회의 분쟁 양상이 대형교회의 병폐 못지 않은 경우는, 교회론에서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의 크기는 다를지언정 문제의 본질은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성장론적 패러다임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은 그러나 개교회 차원에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인다. 구조의 문제를 개별적 노력으로 극복하자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를 상기하게 된다. 나는 '공룡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생태계를 만들자는 열정'으로 전환되어야만 제대로 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개신교 생태계'는 다양한 층위를 갖게 되겠지만, 적어도 크고 작은 교회들의 상호의존적 관계망이 형성되어 얻을 수 있는 '교회 생태계',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확보를 위한 '지식 생태계', 그리고 개신교의 자원이 한국사회와 풀뿌리에서 얽히고 만나는 '시민생태계'로 나타나야 한다고 보았다. '교회 세습'에 대한 원칙 있는 비판과 긴급한 저지에 힘을 모아야 하는 한편으로, 구조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멀고도 긴 노력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절감한다.

3.

'교회 세습'이 현재의 개신교 생태계에 끼치는 악영향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는데, 이는 교계나 개교회에 존재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고질적인 악영향을 남긴다는 점이다. 세습을 자행하는 이들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회나 공동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권위주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교계 언론들이 일제히 침묵하는 행위, 혹은 이에서 더 나아가 반대 여론을 악마화하고 비난하거나, 세습을 공공연히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궤변을 전면적으로 내어놓는 등의 행위는 자기폐쇄적 속성을 강화하고 있다. 제도와 구조에 대한 불신과 무력감을 조장하고, 모든 절차적 정당성은 간단히 우회하는 방식이 개신교권에 내면화 되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개신교를 타락시키는 핵심적 요인이 될 것이다.

종교개혁이 중세시대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대한 전환에 주요한 동력을 제공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그 역방향의 사건, '근대를 닫고 중세를 여는' 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그것도 '개신교'의 깃발 아래서. (물론, 이는 한국사회 전반의 처지와 동떨어진 상황은 아니다.) 나는 개신교의 퇴락 양상 가운데에서 '교회 세습'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면서도 뚜렷하게 현재 개신교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노출시키고 있는 사건이라 생각한다. 이를 잘 해결한다면, 한국사회의 개선에 개신교가 기여할 여지가 조금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한국사회의 가장 퇴행적 양상의 하나로 간주되어 '존재하되, 인정받지 못하는' 매우 괴로운 방식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 우려한다. 이것은 우리의 '말의 값'을 떨어뜨리고, '행동의 동기'를 늘 의심 당하는 처지에 몰아놓을 것이다.

처방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선 대증요법으로는, '교회 세습'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매우 깊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상기시킴으로써 '세습'은 결코 원래 의도한 결과를 낳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계의 다양한 층위에서 순차적으로 지속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 감리교의 경우에서 보듯 교단 차원에서 법을 제정하는 노력이 확산될 필요가 있고, 여론의 감시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다. 좀더 장기적인 처방으로는 개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쉽게 왜곡되거나, 기만 당하지 않도록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개별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세습' 시도들이 좌절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만큼, 성도들의 인식과 교회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런 방향에 동의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네트워크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언론과 기독교운동 단체들의 역할이 크게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개신교의 자식들이 가장 반 개신교적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모색할 대안은 개신교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봉건적 중세 시대에 반대하며 등장한 개신교 원리에 내재된 '근대적 민주주의' 원리는 우리의 신앙이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발현되는 토양을 다루는 것이다. '교회 세습'이란 매우 봉건적 양상을 만나면서 퇴행하는 개신교의 모습이 안타깝게 보인다. 우리의 대안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개신교 정신의 도래를 꿈꾸어 본다.

발제문 2

교회 세습, 상식에서 생각하자

나이영 부장(CBS 종교부)

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이 언제부터 유행됐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교회 세습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시점은 지난 1997년 충현교회 김창인 원로목사가 아들 김성관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겨줄 때부터로 기억한다. 그리고 2000년 광림교회가 김선도 목사의 아들 김정석 목사를 담임목사 후임자로 선정하면서부터 교계 내에서 교회 세습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생겨났다. 당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마련했던 교회 세습 관련 공청회가 광림교회 신도들로 인해 무산됐던 경험과 2001년 3월 김정석 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할 때 이에 반대하는 신도들과 기윤실 등 교계 단체 회원들이 광림교회 길 건너편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던 일 등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로부터 10여년. 대형교회를 중심한 담임목사직 세습에 제동이 풀리면서 교회 세습은 이제 일반화되다시피 확산되고 있다. 1998년 금란교회가 아들 김정민 목사를 담임목사에 앉혔고, 인천 송의교회와 부평교회, 주안감리교회, 부천 기동교회, 베다니교회, 임마누엘교회 같은 대형교회들이 세습을 이어갔다. 아들 목사에게 대규모 분립개척을 마련해준 소망교회의 변칙 세습이나 최근 교회 통합형식을 빌리려다 정공법으로 세습을 단행한 왕성교회 사례도 유명하다. 목사의 권한이 장로교회보다 상대적으로 큰 감리교회에서 교회 세습이 더 많이 이뤄진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교회 세습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세습 방법도 다양해졌다. 가까운 목회자 간의 교차세습, 교차세습의 범위가 확대되면 다자간 세습, 아들이 아니라 사위에게 물려주는 사위세습, 가까운 목사를 거쳤다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명 쿠션세습, 분립개척으로 재산과 신도들을 물려주는 변칙세습,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와 통합하는 방식의 통합세습 등 그 방법과 유형도 다양해졌다.

물론 대형교회 세습을 단호하게 거절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금은 고인이 된 충남 흥성성결교회 송헌빈 원로목사에게는 목사 아들이 4명이나 있었고, 교인들도 그들 가운데 한명을 청빙하길 원했지만 고인이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그 전통은 후임자에게도 이어져 유기성 원로목사도 목사 아들이 있었지만 세우지 않았다. 화평교회 안만수 원로목사와 성락성결교회 박태희 원로목사 역시 아들이 목사였지만 외부에서 후임목회자를 청빙해왔다. 부산 호산나교회 최홍준 목사는 사위가 목사였지만,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는 아들은 물론 사위도 목사였지만 물려주지 않았다. 당연한 선택이지만 세습을 거절한 사례가 기사화될 정도로 교회 세습 풍토는 한국교회 안에 만연해있다.

교회 세습을 찬성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후임 목회자를 결정하는 것은 교회 내부 일로, 외부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세습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01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밝힌 입장을 보면 “교회의 후임자 승계는 어디까지나 그 교회와 교단의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일이지 그 교회 밖에서 주관적인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개교회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는 것이었다. 교회 세습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이같은 입장은 지금도 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물려받는 아들이나 사위의 능력과 자질이 충분해 교인들이 모두 원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교회언론회가 예전에 목회자 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들의 후임목회에 대해 26%가 찬성했고, 후임자 능력과 자질,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무방하다는 응답은 53%에 달했다. ‘절차상 정당성’은 세습을 찬성하는 주된 논리다. 또 아들이 담임목사직을 이으면, 자칫 원로목사와 담임자 간의 교회 혼란과 분열도 막을 수 있고, 교회도 더 성장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대형교회를 일군 목회자의 공로를 인정한다면 아들이 담임목사직을 맡는 것이 그렇게 지탄받을 일은 아니라는 입장도 제기되곤 한다. 이 같은 주장은 기독신문이 예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목회자의 45.4%가 세습을 지지하고, 특히 아들을 목사로 둔 목회자의 경우 60%가 세습을 지지한 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물려주는 것인 만큼, ‘세습’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교회언론회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16%만이 세습이란 용어선택이 적절하다고 했을 뿐, 84%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지난 해 ‘세습’이란 용어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들 대물림’에 대한 신학적, 교회론적 입장은 분명하다. ‘하나의’(one), ‘거룩한’(holy), ‘보편적’(catholic), ‘사도적’(apostolic) 교회라는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생각할 때 이는 통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습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적인 교회를 철저히 개교회화, 더 나아가 사유화한데서 비롯된 폐해일 뿐이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이라는 조건을 내세우지만, 사유화된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는 인사권, 재정권을 모두 장악한 권력이어서 이에 반발할 자유는 그리 많지 않다. ‘세습’을 단행한 교회의 경우 목사의 권한이 절대적인 경우가 많았고, ‘청빙 절차’에 아버지 목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물론 극히 예외인 경우는 있지만, 그 예외 때문에 ‘세습’을 용인할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아들이 물려받아야 교회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이미 교회가 참 신앙공동체가 아님을 스스로 고백하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세습’이라는 용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다만, 현재 교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들 대물림’의 실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습’의 현상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같은 표현이 등장할 뿐이다.

교회 밖 상식에서 바라볼 때, 대형교회가 갖고 있는 영향력과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려받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특권일 뿐이다. ‘아들 대물림’을 결정한 교회 내부에서는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니면 잘 모른다”고 외부의 비판을 탓할지 모르지만, 이 같은 발상부터가

사회와 격리된 개교회주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격이다. 이미 대형교회는 사회로부터 주목받고 있고, 그래서 더욱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것이 또 성경적이기도 하다. 아들이 자격이 있다고 해도 더 자격 있는 사람을 찾으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그 자격은 이미 객관성을 잃어버린 자격이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형교회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자리는 누구도 쉽게 얻지 못하는 '대박 재산'이다.

종합해 보면, 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은 개교회주의와 교회 사유화, 성직자 중심주의, 교회성장 지상주의가 가져온 일그러진 현상일 뿐이다. 교회 모습이 올바른 신앙 공동체로 존재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세습 논란'이 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대형교회의 눈치를 보는 일부 기관들이 '대물림'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기관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12년 총회 선언문을 통해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히면서 첫 번째 과제로 "교회의 세습이라는 일각의 부끄러운 모습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교회협의회는 '교회 세습'을 "세상의 관행과 권력과 우상에 편승한" 결과로 보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유화하는 교회 세습을 부끄러운 죄로 고백하며 세습의 관행과 문화를 근절시키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도 2012년 발표한 '한국교회 목회자 윤리선언'에서 교회 세습 근절을 다짐했다. 한목협은 "우리는 교회의 주권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는다"면서 "교회는 담임목사의 소유가 아니며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도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는 자녀나 친족에게 담임목사의 자리를 대물림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며,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세습'을 근절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기독교대한감리교회는 지난해 10월 입법의회에서 '세습방지법안'을 채택했다. 감리교는 담임자 파송 항목에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의 담임자가 될 수 없다"는 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세습 근절 의지를 제도화했다. 이 제한조항에는 담임목사의 사위나 며느리도, 또 부모가 장로인 경우에도 그 자녀가 담임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사회로부터 크게 주목받은 이 결정은 교회 개혁단체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힘써온 '세습반대운동'의 성과물로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 세습방지법은 한 일간지 사설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자정능력을 상실한 교단을 치유하기 위한 외과수술"일지도 모른다. 극단의 외과수술이 필요하다면 이를 통해서라도 개혁입법 채택을 타교단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와 함께 세습을 용인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인식부터 변화시키는 내적 치유도 병행돼야 한다.

다행인 것은 예전에 비해 세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부자세습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최근 세습을 추진한 왕성교회는 자칫 몇 표만 돌아섰어도 공동의회에서 부결될 뻔 했다. 담임목사의 뜻을 무조건 따르면 예전과 달리 신도들의 의식이 많이 깨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또, 세습이 이뤄졌다고 해도 이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도 필

요해 보인다. 교회를 물려준 아버지나 물려받은 아들이나 당당하지 못함은 지난 10여년의 교계 분 위기에서 엿볼 수 있다. '세습 목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지내야 하는 부담감이 큰 것이다.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교회 담임자라는 유형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의 정신일 것이다. 안정된 자리와 물질, 권력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 선교 사역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탐욕과 이기심만 넘쳐나는 일종의 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세속화의 길을 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 세습을 근절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교회세습반대 운동연대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큰 이유다.

발 제 문 3

(초)대형교회의 목회세습, 어떻게 볼 것인가?

양혁승 교수(연세대 경영학과)

(초)대형교회 목회세습은 '인간적 탐심에서 연유한 공적 직위의 사유화'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공교회성에 대한 부정'이다. 그런 점에서 목회세습 방지운동은 한국교회의 '공교회성 회복운동'이라 할 수 있다.

1 (초)대형교회의 목회세습: 한국재벌기업의 경영권 세습과의 이미지 중첩성

- 상생과 공존보다는 시장논리에 입각한 경쟁과 독점의 논리가 지배하는 한국기업생태계와 현재 한국교회생태계는 매우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 바, 기업의 양극화(99·88 현상)와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 한국교회의 양극화는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 따라서 (초)대형교회의 목회세습은 한국사회 내 재벌 총수일가로 상징되는 특권계층의 편법적인 부/경영권 세습과 매우 유사한 이미지 중첩성을 갖는다.

2. 한국교회의 목회세습,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 전통적 가족혈통주의 문화: 한국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무한책임의식과 혈통을 잇는 자녀들에게 부와 권력을 물려주는 관행이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cf. 서구사회: 성인이 된 자녀들의 독립(자립)에 큰 가치를 부여함.
- 성직주의에 기반한 목회자주도의 교회운영: 우리나라 고유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전통과 성직주의가 어우러져 교인들의 목회자 의존도가 지나치고 높고, 목회자주도의 교회운영과 의사결정관행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 목회자의 공로(功勞)의식: 특별히 개척·창립한 교회가 (초)대형교회로 성장한 교회의 목회자들에게는 부지불식 간에 공로의식이 자리잡을 개연성이 높다.
- 인간적 욕심: (초)대형교회의 목회세습은 어떠한 명분을 앞세우든 본인이 이룩했다고 생각하는 안정적 목회기반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본인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인간적 욕심이 그 기저에 놓여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목회세습은 이상의 요인들, 즉, 가족혈통주의 문화와 가부장적 전통과 성직주의가 작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목회자중심의 교회운영관행, 본인이 (초)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는 목회자의 공로(功勞)의식, 인간적 욕심 등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3. (초)대형교회 목회세습의 의미와 시사점은?

- 목회세계의 계층화 진전과 계층간 이동성 저하: 기독교 교세가 확장된 결과로서 기독교의 영향력 증대와 세력화가 진행되고, 교세의 불균등한 분포 속에서 교계 안에 교회의 규모에 따른 계층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었다. 그러한 계층화의 진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세습은 목회세계 내 계층간 이동성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한국교회 세속화의 단적인 증거: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상적 증상들(예, 독점과 경제력집중의 심화, 편법적 부와 경영권 세습 등)과 너무도 흡사한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바로 한국교회 세속화의 단적인 증거라 볼 수 있다. 몇몇 (초)대형교회의 목회자에게서 재벌그룹 총수의 이미지를 느끼는 것이 한국교회의 불편한 현실이다.

-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학의 한계 노정: 수십 년 목회자로 헌신해온 분들이 은퇴시점에 인간적 욕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분들이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쳤던 것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그 분들이 기반으로 했던 신학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그러한 모습은 일반성도들에게 신앙의 능력에 대해 강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키는 악영향을 미친다.

- (초)대형교회의 정상적 내부건제 및 자정기능 부재의 증거: (초)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목회세습이 사적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관철된다는 것은 정상적 내부건제 및 자정기능이 부재함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믿는 자들의 실존적 본질은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을 이뤄가야 할 약한 존재"라는 점이며, 목회자라 할지라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액튼 경의 경구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교회 내에도 정상적 내부건제 및 자정 메커니즘이 구비되어 작동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 교회의 대형화에 따른 위험성의 일면: 교회가 대형화됨에 따라 뒤따라오는 폐해 중 하나가 교인들의 익명성이 높아지고 소시민화가 진전된다는 점과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개개인의 발언권과 영향력은 $1/n$ 로 작아지는 반면, 담임목회자의 발언권과 통제력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4. (초)대형교회의 목회세습, 왜 문제인가?

-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부정: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목회자는 청지기라 할

수 있는데, 목회세습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실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부정하고 담임목회자가 청지기가 아닌 주인의 위치에서 청지기 임명권을 남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목회세습에 대한 의사결정은 목회의 가시적 열매를 맺게 된 주체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해당 목회자 자신의 역량에 있었다는 인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 교회공동체의 구별성 상실: 교회공동체가 성경적 가치와 원리를 좇아 운영될 때 세상공동체와 구별된 대안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데, (초)대형교회의 목회세습은 교회공동체의 세상공동체와의 구별됨을 손상시킴으로써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제약하게 된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 5:13)

- 교회의 사유화와 공교회성 상실: (초)대형교회의 목회세습은 그 이익이 1차적으로 해당 목회자 가족의 사적 이익으로 귀결되는 반면, 그에 따른 비용은 한국교회 전체와 목회자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회의 사유화와 공교회성 상실'로 규정할 수 있다. 한국교회를 가시적으로 대표하는 일부 (초)대형교회들의 목회세습을 비롯한 부정적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반기독교 정서의 확산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촉발하는 데 일조했다.

- 목회자사회의 활력저하 초래: (초)대형교회의 목회세습은 (초)대형교회 목회자들의 급격한 기득권화 및 보수화와 목회세계의 계층화 및 계층간 이동성 약화를 초래하고, 역량 있는 예비목회자들의 유입을 방해함으로써 목회자사회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 나아가 목회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목회자들의 박탈감과 허탈감을 심화시킴으로써 그들의 목회의욕을 잃게 할 수 있다.

- 정의에 반하는 불공정성 용인: 부와 권력의 세습은 사회적 불공정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바, (초)대형교회의 목회세습 또한 교회 내에 정의에 반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착근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 사회적 공정성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운(運, luck)이라 할 수 있는 요소가 경쟁의 출발선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이슈임.

5. 기능론에 입각한 (초)대형교회 목회세습의 명분과 반론

- (명분1) 리더십 공백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목회세습은 통상 개척·창립한 목회자의 은퇴와 맞물려 발생하는데, 개척교회로 시작한 교회가 (초)대형교회로 성장한 후 해당 목회자가 은퇴하게 되면 리더십 공백이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리더십 공백과 그로 인해 성도들이 느끼게 될 상실감을 단기간에 메울 만한 후임 목회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임목회자 자녀에게 담임목회자 자리를 물려주는 것은 리더교체기에 당면하는 리더십 공백과 그것을 메우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적 측면이 있다는 주장.

- (명분2) 후계자의 뛰어난 역량: 후계자가 뛰어난 목회역량을 갖추고만 있다면 혈족주의에 입각한 후계체계의 일반적 문제점(즉, 역량이 부족한 후계자의 선발)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 (반론1) 취약한 교회 건강성의 증거: 특정 교회의 건강성은 리더교체기에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바, 목회세습을 통해서만 리더교체기에 당면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교회라면 해당 교회의 평상시 건강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교회공동체 내 평신도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몸 된 공동체의 중추로서 자리매김되어 있는 건강한 교회라면 리더교체기에 당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몸 된 교회의 공교회성과 지속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목회자라면 사전에 리더십 공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임자 육성 및 공정한 청빙절차 등을 마련해놓아야 한다. 사전에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막상 당면한 시점에서 리더십 공백에 따른 현실적 문제를 앞세워 목회세습을 정당화하려는 자세는 옳지 못하다.

- (반론2)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공정하고 정상적인 청빙절차 적용: 은퇴 목회자 자녀가 아무리 뛰어난 목회역량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목회세습이 한국교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감안할 때 적어도 전임 목회자의 후광효과를 배제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예컨대, 5년)이 지난 후 공정한 목회자 청빙절차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6. 비정상적 목회세습을 예방하려면?

- 교단차원의 방지노력: 세습금지가 기본원칙이고, 불가피한 목회 승계가 예외가 되도록 교단 차원에서 원칙과 규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의사결정구조의 개선: 목회자의 독단적 의사결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확인하는 과정으로서의 의사결정과정의 교회 내에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함.

- 교회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건강한 내부건제 메커니즘 구축: 목회자의 재량적 예산사용의 목적과 범위와 방식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적 관리체계보다는 예방적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목회자 임기제와 목회와 행정의 분리: 담임목회자의 교회에 소유의식을 청지기이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임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목회자가 부패와 세속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근본원인 중 하나가 담임목회자가 실질적인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운영구조와 관행 때문이라 할 수 있는 바, 목회와 행정을 분리하고 상호 건강한 견제가 일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교회생태계의 질적 전환: 한국교회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차원에서 보면 소수의 (초)대형교

회와 대다수의 소형교회로 구성되어 있는 양극화된 교회생태계보다는 중형교회의 층이 두터운 교회생태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초)대형교회의 중형교회로의 분화/분립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초)대형교회의 중형교회로의 분화/분립은 한국교회의 공교회성 회복의 중요한 진전이라 볼 수 있음.

- 많은 목회자들에게 양질의 목회사역 장(場)을 제공하고 유능한 목회자들의 지속적 유입을 촉진하는 측면

- 교세집중에 따른 위험성을 완화하는 측면: 대표성을 갖는 초대형교회의 파행은 한국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내부견제 메커니즘이 작동되기 어렵고 그 결과 목회자의 부패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음.

- 바른 목회사례의 발굴 및 확산과 교인들의 의식수준 향상: 궁극적으로는 바른 목회의 사례들이 확산되어 한국교회의 규범으로 자리잡고, 성도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목회자 의존성과 맹신성이 낮아질 때 비정상적 관행이 사라질 것임.

발 제 문 4

교회세습, 낡은 가족부대

박득훈 목사(새맘교회)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가족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 9:14-17). 낡은 가족부대는 탄력성이 사라져 새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이 몸으로 선포하신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가족부대란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신앙공동체 자체와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전통, 구조 그리고 행동양식을 의미합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가족부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족부대는 포도주와 세상이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가족부대의 모습은 포도주의 성질과 세상의 압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인간문화와 접촉할 때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⁹⁾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부대는 새로운 포도주를 만나면서 늘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낡은 가족부대로 전락해 버립니다. 결국 낡은 가족부대는 찢어지고 새 포도주는 쏟아져버립니다.

한국교회 내에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은 대표적인 낡은 가족부대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나라의 복음이 한국인의 토양과 만나면서 잘못 형성된 한국교회의 독특한 구조적 모습입니다. 그 낡은 구조 때문에 결국 한국교회는 스스로 망가지고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나라의 복음은 그 구조 안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교회는 집단적으로 '안톤의 실명'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력을 잃고도 자신이 볼 수 있다고 확신하는 증세를 말합니다.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우기는 바리새인 증세라 할 수 있습니다(요 9:41). 하여 저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교회세습이 어떤 점에서 낡은 가족부대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맺음말에서 새 가족부대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 머리되심에 대한 위협

첫째, 교회세습은 예수님의 교회 머리되심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9) Howard A. Snyder, *The Problem of Wineskins* (Downers Grove: IVP, 1975), p. 13-14(필자 번역). 번역본은 하워드 스나이더 저, 이강천 역,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생명의 말씀사, 2006).

물론 담임목사직을 세습하는 교회는 이 사실을 안 받아들이기 뿐 아니라 오히려 역공을 합니다. 한기총은 작년 7월에 한국교회세습을 후임담임목사 청빙이라고 옹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논지는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은 아버지 목사 개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요 교회 공동체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선 재산과 신분을 물려받는 세습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시골의 쓰러져 가는 교회 세습은 용인하고 대형교회 세습은 비난한다면 이야말로 세속적, 비성경적, 인본주의적 사고의 반증이라며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논리를 흔히 관념주의적 오류라고 말합니다. 관념적 진리를 실제와 혼돈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못 인식하는 오류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신학적 원리이자 진리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전까지는 관념의 세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교회의 경우 그 신학적 원리와 진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강력한 카리스마의 소유자인 권위주의적 담임목회자가 교회에 속한 것의 대부분을 자신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하고 교인들은 이에 순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 가능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전까진 목회자나 교인이나 죄와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 원리를 운운하면서 그 원리에 따라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우긴다면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안톤의 실명 증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세습은 특정 교회의 실질적인 모습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신학적 원리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시골의 쓰러져가는 교회와 초대형 교회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시골의 다 쓰러져 가는 교회엔 아들이 물려받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습의 가능성은 전무하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의 여지보다는 오히려 칭찬과 격려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¹⁰⁾ 그러나 중대형교회의 경우는 세습이 가능합니다. 목회자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재산과 지위 그리고 권력 등 다양한 특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대형교회의 경우 중요한 것은 특정교회가 신학적 원리에 따라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한국교회의 경우 그렇지 못한 교회가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특히 초대형교회의 경우 담임목사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교회재정을 좌지우지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은 이미 그 동안의 수많은 언론보도와 법정판단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¹¹⁾ 한기총의 심각한 오류는 이런 실재를 외면한 채 신학적 원리를 들고 나와 세습을 일괄적으로 정당화한다

10) 그러나 이런 평가마저 조심스러운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목회자가 너무 많이 배출 되어 시무할 곳이 없어 목회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11) 금란교회의 경우 2008년 아들 김정민 목사가 아버지 김홍도 목사를 이어 담임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홍도 목사는 2006년 대법원에서 31억 원의 교회재정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홍도 목사는 해당 재정지출이 해당교회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정은 교인전체의 사전 결의 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지출이 교회본래의 목적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담임목사의 명예는 교회의 명예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재정으로 담임목사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재판에 드는 비용을 교회가 부담한 것도 명백히 불법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교회와 교회재정은 결코 사유화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부끄럽고 슬프게도 일반 법정이 밝힌 것입니다.

는데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신학적 원리를 무기 삼아 한국교회의 진실을 파악하는 뼈아픈 노력을 공격합니다. 이는 한기총이 실질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한국교회의 머리되심을 실현해 가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교회세습은 낡은 가족부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세습을 원론에만 의존해서 정당화하려는 교회는 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결국 낡은 가족부대처럼 터질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교회에서 거처를 마련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언약공동체로서의 교회 정체성에 대한 위협

둘째, 교회세습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언약공동체로서의 교회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혈연관계를 중요시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순종해 받들었고, 청년시절 아버지와 함께 목수로서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공생애를 십자가에서 마감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나라 복음 선포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는 육신적 혈통을 이어가는 혈연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언약공동체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막 3:31-35). 이것은 구약의 언약 공동체를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 언약을 맺은 궁극적인 뜻은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 넘어 전 지구적인 언약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셨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마 8:10-12).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교회세습은 이러한 언약공동체로서의 교회 정체성을 위협하는 처사입니다. 한기총은 앞서 언급한 성명서에서 신학적 원리를 그렇게 강조하더니 결국 엉뚱한 신학적 오류를 드러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전통'을 언급하며 교회세습이 바로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미화합니다. 이는 교회의 혈연을 초월하는 언약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폄하 내지 사실 상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그런가하면 김홍도 목사는 작년 9월 1일자 모 일간지 설교 광고를 통해 목사도 '육정을 갖고 있는 지라' 아들이 자신을 이어 담임목사가 되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고 교회가 편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해는 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언약공동체로 세워가야 할 목회자가 공적으로 취할 수 있는 처신이 아닙니다. 그런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언약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시기심을 극복하고, 혈연을 뛰어넘어 언약공동체를 사랑하라고 권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세습을 이런 식으로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교회는 낡은 가족부대입니다. 혈연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교회 중심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맘몬숭배의 강화

마지막으로 교회세습은 예수님이 그토록 경계하신 맘몬숭배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돈과 재물을 일컬어 맘몬이라고 규정하신 것은 그것이 단지 물질이 아니라 경쟁신이요 하나님의 대항마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맘몬에게는 하나님에 맞서 강력하게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대형 교회세습을 경계하는 이유는 교회세습이 그러한 맘몬의 영향력을 더 강화시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형 교회 안에는 주관적 인지여부를 떠나 부와 지위 그리고 권력이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엄청난 헌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돈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안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청결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강도의 소굴이요 장사하는 사람의 집으로 전락되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성전이 하나님이 아닌 돈의 힘에 장악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은 신약교회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재산에 대한 탐욕과 미련 때문에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억하면 됩니다. 다행히 사도 베드로가 엄중히 책망해 교회가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항상 그러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부와 지위 그리고 권력을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교회세습은 그것을 다루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부와 권력과 지위가 실질적인 면에서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면 그 힘은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속한 것이 다 하나님과 교회 전체의 것이라는 신학적 논리를 펼친다고 해도 그 실질적 주인은 아버지와 아들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손에 쥐어진 부, 지위와 권력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힘으로 부자(夫子)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의 뜻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 성장 그 자체를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흔히 외적 성장 자체가 성령충만의 증거라고 확신 있게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세습이든 교회재정 횡령이든 거의 절대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으로 등치됩니다. 이것은 성공이 옳은 것이라는 mammon의 논리입니다. 이런 mammon의 논리로 무장된 교회는 예언자적 목소리에 결코 귀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안톤의 실명 증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우기는 것은 그들이 사실상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누는 삶을 강조하며 mammon숭배를 경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눅 16:1-15).

교회세습을 mammon의 논리로 정당화하는 교회는 낡은 가족부대입니다. 안식년법, 희년법 그리고 초대예루살렘 교회에서 실현된 재산통용의 교제로(행 2:43-47, 4:32-37) 이어지는 하나님나라의 가르침을 진정성 있게 수용할 수 없습니다. 중대형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목회자가 어떻게 교인들에게 재산을 통용하라고 진정성 있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 한국교회가 mammon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와 그토록 친화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낡은 가족부대는 터질 것이고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안에 머물지 않으실 것입니다.

맺음말: 새 가족부대를 향하여

한국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새 가족부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진정한 주인으로 다스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이 함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민주적 교회운영구조를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언약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담임목사직을 맡으면 불편하고 흔들리는 그런 교회는 진정한 언약공동체가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의 뜻을 실천하는 이들을 혈연을 떠나 존중하며 따르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맘몬숭배를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는 교회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 안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맘몬의 논리들을 발견하고 통회 자복해야 합니다. 설교, 성경공부, 교회운영의 모든 분야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롭게 배워가야 합니다. 교회세습이 정당화되어가고 있는 이 슬픈 시간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혁의 기회로 해방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소개

1. 조직구성

- ① 고 문 : 김복경 목사(전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총장), 손봉호 장로(서울대 명예교수), 이만열 장로(전 국사편찬위원장), 이형기 명예교수(장신대), 홍정길 원로목사(남서울은혜교회)
- ② 공동대표 : 김동호 목사(바른교회아카데미), 백종국 교수(기윤실), 오세택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 ③ 지도위원 : 강영안 교수(서강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전재중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황광민 목사(석교감리교회)
- ④ 참여단체 : 감리교 장정수호위원회, 개혁교회네트워크,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20목회자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바른교회아카데미, 성서한국
- ⑤ 실행위원장 : 방인성 목사(함께여는교회)

2. 운동취지

- ① 교회세습은 권력화 된 한국교회의 정형화된 모습으로 교회갱신을 위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최근 들어 교회 세습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면서 교회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교회세습방지는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운동이다.
- ② 이를 위해 각 교단마다 세습금지를 위한 입법운동을 목표로 세습인식여론조사, 세습단행본 출간, 정기포럼, 세습반대서명 및 서약운동, 사회와 교회의 여론형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 ③ 장기적으로는 세습의 근본원인인 교회리더십 교체의 바람직한 방향제시와 건강한 청빙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출 범 선 언 문

우리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현재 한국 교회에 만연한 담임목사직 세습 관행의 중단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부와 명예와 권력이 동반되는 담임목사직을 그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에게 세습하는 행위는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더라도 안으로는 교회의 성경적 정체성을 파괴하고, 밖으로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에 불과하다.

성경적 공교회 정신에 근거할 때 교회 세습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며 절대로 특정 목회자 또는 그 가문이 사유할 수 없다. 한 교회의 흥망성쇠는 목사 개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초월적 경륜에 달려있다. 목회자의 직분은 구약적 혈연주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에 의해 결정된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배제한 채 일부 특권층이 독단적으로 교묘하게 진행하는 교회 세습은 성령의 역사라 할 수 없다.

교회가 복음 전파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교회 세습은 불가하다. 교회 세습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지 오래다. 북한의 3대 세습과 재벌의 편법 세습과 마찬가지로 교회 세습의 요체가 자기 자신과 자녀 그리고 자기 조직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이기적인 탐욕이라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범을 따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땅히 누릴 기득권조차도 스스로 포기하는 초월적 도덕성을 드러내야 한다. 하물며 세속에서도 납득하지 못하는 세습을 탐하는 것은 복음의 증인의 자세가 아니다.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삶으로는 복음의 정신을 위반하는 위선적 전도에 설득될 사람은 없다.

우리는 교회 세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습의 부당성에 대해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를 널리 교육하고 홍보할 것이다. 또한 세습 반대에 동의하는 이들의 염원을 모아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각 교단들이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아 교단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한국 교회가 올바로 개혁되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2년 11월 02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 김동호·백종국·오세택

참 여 단 체 소 개

감리교 장정수호위원회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산성 100-4 산성감리교회
전화 043-353-2220 이메일 jbc209@hanmail.net

개혁교회네트워크 cafe.daum.net/reformingchurch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19
전화 010-3293-3392 이메일 kairos512@naver.com

교회개혁실천연대 www.protest2002.org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 영남빌딩 205호
전화 02-741-2793 팩스 02-741-2794 이메일 protest@protest2002.org

교회2.0목회자운동 cafe.daum.net/church2.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4-2 청진빌딩 4층 405호
전화 070-7523-1563 이메일 vmschoi@gmail.com

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이메일 cemk@hanmail.net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www.nics.or.kr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80-2 에이원빌딩 2층
전화 070-8260-0208 팩스 02-323-0208 이메일 nics@nics.or.kr

바른교회아카데미 www.goodchurch.re.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2가 19-8번지 청어람
전화 02-777-1333 팩스 02-319-1103 이메일 gcacademy@hanmail.net

성서한국 www.biblekorea.org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 영남빌딩 205호
전화 02-734-0208 팩스 02-734-0209 이메일 bible-korea@hanmail.net

광 고

1. 교회개혁실천연대 목회자청빙연구위원회,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출판기념회

교회개혁실천연대 목회자청빙연구위원회는 2010년부터 목회자청빙에 관한 올바른 신학과 제도
와 절차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작은 성과들을 담아 책으로 출판합니다.

이 책을 통해 청빙 문제로 갈등과 분쟁이 증대되는 상황의 한국교회에 성서적 근거와 실제적
인 지침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의 건강한 청빙문화를 꿈꾸는 분들을 모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대교체의 시기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자리
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 일시 : 2013년 1월 17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 명동 청어람 3실
- 참가비 : 1만원(책 포함)
- 순서
강연 _ 조석민 교수(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신약학, 함께가는교회 목사)
책소개 _ 한문덕 목사(향린교회)
저자소개
이야기손님 1 _ 조주희 목사(성암교회, 목회윤리연구소 이사)
이야기손님 2 _ 여혜숙 집사(성문밖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전체토론
- 주최 : 교회개혁실천연대 www.protest2002.org
뉴스앤조이 www.newsjoy.or.kr
- 문의 : 02-741-2793 / protest@protest2002.org
- 블로그(목회자청빙운동) : callingpastor.tistory.com

2.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교회세습 인식 연구조사> 발표

담임목회자 교회세습에 대한 목회자, 평신도, 일반인의 인식을 연구 조사하여 발표합니다.

- 일시: 2013년 1월 28일(월) 예정, 장소 미정

3.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학술 심포지엄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교회세습과 관련하여 신학생, 목회자, 교수를 대상으로 신학·사회학적 조명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 일정: 2013년 2월 19일(화)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 청어람 5실
- 구성: 성서신학, 교회사, 윤리학, 조직신학, 사회학 분야 연구발제
10:00~10:30 접수
10:30~12:00 성서신학/구약학: 전성민 교수(웨신대), 신약학: 김판임 교수(세종대)
12:00~13:00 점심식사
13:00~13:50 역사신학 발제: 배덕만 교수(복음신대)
14:00~14:50 조직신학 발제: 현요한 교수(장신대)
15:00~15:50 윤리학 발제: 유경동 교수(감신대)
16:00~17:00 사회학 발제: 박영신 교수(연세대)
- 참가비: 무료 (참석자 식사는 개별부담)

4. 교회세습 제보 및 상담신청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개별 교회세습 제보 및 상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 및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741-2793
- 이메일 : churchseban@gmail.com
- 홈페이지 : www.seban.kr, www.세습반대.kr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 영남빌딩 205호